

#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2024년 동절기 대비 전국 가금농가 1차 방역 점검 전실 미설치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정부가 지난 5~7월까지 9주 동안 전국 5,396개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853개(16%) 농가에서 1,659건이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방역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닭 사육농가에서는 산란계 농가의 미흡비율이 23%로 같은 축종인 토종닭(13%), 종계(12%), 육계(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금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축종은 종오리(47%)였으며, 메추리(25%), 육용오리(24%)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미흡사항을 보면 전실이 409개농장(25%)으로 가장 많았으며, CCTV(16%), 신발소독조(7%), 차단망(6%), 울타리(5%), 차량소독시설(5%), 출입통제(5%) 등이 주요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그 외에 기록부, 방역용품, 출입차량 표시, 대인소독시설, 방역실, 1회용난좌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한 농장들도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 점검 시 미흡농장은 이행계획서 보완여부를 8월말까지 점검하여 미보완 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ASF 발생, 공사, 화재 등으로 점검을 마치지 못한 농장을 우선 점검하고 계열화사업자 계약농장(3,742호) 및 방역관리책임자 선임농장(528호)을 8월 말까지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5월에도 발생사례가 나타나면서 여름철에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소를 통해 A 바이러스가 인체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업계에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방역은 기본이다.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따라 줄 경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농가들로서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양계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역을 사수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본다.



## 가축재해보험 개선 필요성 제기

가금일령 발육표 현실화되어야

지난 7월 중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정부 공식통계 69만3천 마리의 가축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물폭탄으로 인한 닭들의 피해는 90%로 나타났으며, 그중 육계사가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에서도 피해농가를 방문한 결과 참담한 현장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이 차면서 육계 전수가 폐사하는가 하면, 한 농가는 계사 뒷산에 태양광업자들이 설치한 구조물들이 계사를 덮치면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각 생산자단체들의 재해 대책상황을 점검하고 소통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재해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회를 비롯한 가금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재해보상금이 턱없이 모자라 보험금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다.

오리의 경우 최근 보험금 지급 액수가 줄어들면서 재해보험 가입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현재 닭은 99.1%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가장 높지만 오리는 아직 68.7%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금액 대비 보상비율도 가금의 경우 1% 수준으로 일반 농작물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가입하는 정책보험임에도 보험회사들의 영업이익만 챙겨주는 불합리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의 보장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기부담금 폐지 및 중복부담 금지, 심사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금 일령별 발육표 현실화, 산란계 계란 1개의 생산비 현실화 등을 요구키로 했다. 가금일령의 발육표는 육계와 오리의 경우 육종이 발전하면서 성장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과 맞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산란계의 경우도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현재 산란계 보험가액은 계란 1개의 생산비가 77원으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계란 평균 생산비는 개당 125원이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고 매년 달라지는 기준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골자로 축산관련단체와 연계해 공동 대응키로 하였으며, 농가의 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보장을 위해 각종 할인제도 도입 및 위험 관리방안 등을 추가 마련하는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양계**